

## 1976年度 圖書館界 回顧

尹 泳 大

專門委 行政涉外分委員長

## 머 리 말

今年도 저물어 간다. 1年間을 회고할 때는 별로 획기적인 발전이 없었던것 같으나 해방이후 또는 6.25동란 이후의 피폐했던 도서관계와 현재를 비교한다면 만족할만한 것은 못되지만 대단한 발전이 이룩된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기름불이 일듯하는 발전은 없어도 한발 한발 착실히 발전해가는 즉 눈에 보이지 않게 발전이 쌓여 왔던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직종인 도서관계에 투신하여 의로운 노력을 펴가고 있는 우리 도서관인 선배 동료들의 보람이라 할 수 있겠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육성책을 입법하여 밀어주는 바도 없고 국민들의 획기적인 성원도 없는 가운데 거의가 우리 도서관인의 순수한 노력의 대가로 오늘 날의 도서관계를 이만큼이나 발전시켰다는데 더욱 자부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중에서도 금년은 계획에 비하여 完決된 것은 적으나 도서관법 개정안의 초안과 도서관 중기발전계획의 초안 등 획기적인 발전에 발돋움을 시작한 몇가지의 중요한 일이 있었고 창립이래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IFLA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일 등은 도서관사에 남을만한 해였다 하겠으나 반면 도서관계의 巨星중의 한분이라 할 수 있는 故張一世 선생의 서거는 우리들을 슬프게 한 일이었고 우리 도서관계의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 해라 할 수 있겠다. 한해를 돌아 보는데 近年에 나온 도서관 통계자료가 없어 통계적인 분석은 불가능 하겠으나 사실 숫자적인 통계는 어떤면에서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 무시하였다. 그 이유로는 공공도서관의 대부분과 학교도서관의 많은 숫자가 法的으로 혹은 어떤 이유에서 설립은 하였으나 유명무실하게 존재한다는 전시효과 외에는 별로 活性이 없는 不活性의 것이 많고 大學도서관에 있어서도 대학설치기준명에 의하여 숫자를 채우기 위한 장서구성 마위에서 장서의 숫적 나열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지난 1년동안 도서관계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항들을 간추려 필자 나름대로 분석하고 아쉬웠던 點과 앞으로의 진로등을 제언하여 볼까 한다. 지난 일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잘못된 것은 시정하여 지난 일을 경험삼아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거도 한번 되돌아 보고 반성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 I. 協會의 活動

## 1) 국제도서관협회연맹대회 개최

5월31일 부터 6월5일까지 1주일간 워커히 본관에서 30여개국 대표 400여명의 참석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회主題는 “도서관자원과 국가발전—東西에 있어서의 동양자료의 이용과 통제”였다. 서두에 기술한바와 같이 IFLA가 창립된 이래 동양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대회를 서울에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서관계의 자량이 아닐 수 없었다. 반면 시행과정중에 미흡한 점이 다소 있었다고 생각한다. 몇명을 제외하고는 국제대회에 참가해 본 경험이 없고 또한 한국도서관협회도 창립이래 처음으로 국제회의를 주관한 것이니 완벽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으나 필자나름대로의 불만을 몇가지 지적한다면 첫째 회의장소 선정에 있어서 워커히를 참가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곳이었다. 그러므로 점심에 식사할 곳도 적당치않아 점심식사를 위하여 밖으로 나가서는 흠여지거나 아예 점심후에 참가하는 회원이 많았던 點과 워커히로 정할바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불가피하였는지 모르나 배스를 몇대 운행하였드라면 의국대표도 취향대로 시내에 숙소를 정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럴수 없어 값이 너무 비싼 워커히에서 묵을수 밖에 없었다고 불평하드란 후문을 들었다. 회비 징수시에 식사대를 포함하여 워커히 구내에서 단체로 주문하는 것도 국내회원들의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일일 것이다. 또한 국제회의에 생소한 국내회원들에게 문제가 선행되었드라면 질문도 많이 하였을 것이나 주

최측 회원들로서 질문조차 별로 없었던 것은 좀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거기에서 느낀 것은 국내회원들의 외국어실력을 길러야겠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문헌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서들로서는 필수적인 것이니 유료로라도 협회에서 외국어 강습회를 실시하면 개인적으로 학원을 찾아가는 것 보다 한층 자유스럽게 참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도서관법 개정안 초안

1963년에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래 13년이 경과하여 국내 경제도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 날까지 단 한번의 법개정이 없었던 것은 당국의 도서관에 대한 배려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었는가 싶다. 본협회 분과위원장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일간 합숙하며 개정초안을 작성하였다. 한번에 대수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져 금년 총회시에 유인물로 회원에게 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결정된바 이화여대 김세익교수의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논제로 도서관 31권 6호에 의견발표가 있었고 地方에서 몇분이 書面으로 사무국에 의견을 보내온 외에는 반응이 없었다. 이는 우리 도서관인들의 참여의식이 너무나도 없고 소극적인 것이라 생각되어 매우 섭섭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후 지난 10월29일 제14차 전국도서관 대회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하였으나 제반사정이 여의치 않아 1977년도 총회로 미루어졌고 또한 1977년도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3) 도서관발전 중기계획 초안작성

계획이 없는 발전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늦은감은 있으나 도서관의 발전계획을 세울것이 착상된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분과위원장회의에서 현규섭先生(출판분과위원장)과 필자에게 그 계획 초안의 작성을 위임받았으나 필자는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현규섭先生이 혼자서 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IFLA총회에 참가한 英國의 P. Havard-Williams교수(IFLA부회장)의 비평을 구하였든바 대단히 잘된것이라 칭찬이 대단하였다 한다. 이 지면을 통하여 혼자 애쓰신 현규섭先生께 도와드리지 못한點 사과를 드리며 1977년에는 그 초안이 구체화되어 실현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바 크다. 이는 아마도 도서관법 개정과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4) 제14차 전국도서관대회 및 제2회 도서관인 체육대회 개최

年中行事로서 1976년도 제14차 전국도서관대회가 서강대학에서 10월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금년

대회에서 특기할 것은 대회참가비의 징수였다. 1974년 이래 협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되고 나서 도서관협회 활동이 한동안 침체되고 재정적 궁핍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매년 행사때면 장소 제공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이유로는 협회에서 소요경비를 충분히 부담하여 주지 못하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나 그러한 악순환을 거듭할 수 없으므로 대회비용을 참가비로서 충당되도록 시정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란 취지에서 행정협의회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였든바 앞으로는 장소제공하는 기관에 큰 폐를 끼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섰다. 그리고 원래 행정협의회분과위원회의 결의로는 발표주제와 발표자를 지정하여 몇몇사람이 둘러가며 발표하는 식을 지양하고 기회가 없어 발표 못하는人材도 啓發하고, 제한하지 않고 많은 훌륭한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대회 1개월前까지 발표신청을 받아 무제한으로 발표하도록 하여 도서관대회를 학술발표회 성격을 완전히 띄울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 되었으나 협회의 IFLA총회 등 바쁜 때문에 금년에는 시행을 보지 못하였고 대신에 도서관학위논문들을 심사받고 사장되는 경향이 있는 논문들을 발표시킴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4個主題가 발표되었다. 한결같은 후문은 발표자들의 발표하는 방법이 미숙하고 내용면에서도 뚜렷하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고 학위논문으로는 내용이 불충실한 점이 있었다는 중론이었다. 그리고 제2회 도서관인 체육대회는 1975년도 도협창립20주년의 기념행사로 시작되어 年例행사가 되었다. 公共도서관법이 2년동안 우승하였다. 남산시립도서관직원의 프로선수급에 가까운 단일팀이 출전하고 있는 데 불법은 아니지만 도서관인들의 친선과 체력단련을 위한 대회인만큼 매년 하나나 하나 단일팀이 출전하여 공공도서관이 우승이다 하게 되면 흥미가 없어지고 따라서 무관심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그 대회가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남산시립도서관팀은 자진하여 단일팀 출전은 삼가하는 것이 전체 도서관인들의 행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5) 한국도서관협회 20年史 發刊

前述한바와 같이 1975년은 협회가 창립된지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기념사업으로 체육대회를 거행하였고 20年史를 편집하여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일이 늦어져서 현재 인쇄중이라 하니 곧 出版될 것이다. 외국에 비하면 짧다 하겠으나 20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을 수는 없다. 이 기회에 전체 도서관인들은 좀더 협력하고 분발하여야 할 것이다.

## II. 協議會의 活動

### 1)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

1967년에 창립된 이래 많은 발전이 있었고 회원도서관의 醫學關係雜誌 綜合目錄을 발행하여 상호대차가 활발히 실시되고 있으며 1976년에 綜合目錄 第四版이 出版되었다. 이는 歐美, 東洋 및 國內醫學關係雜誌까지 總合하여 出版되었다. 그리고 서울醫大에서는 윤봉자선생(豫防醫學 專任講師)이 美國 Western Michigan 大學에서 도서관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Medical Librarianship을 획득하고 귀국하여 서울醫大圖書館 副館長格으로 취임하여 문헌검색 서어비스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문헌검색 서어비스를 완전히 실시하고 있는 의학도서관은 가톨릭 醫大 圖書館에 이어 두번째로서 2個館이 되었다. 점차로 도서관의 봉사활동이 발전하고 있는것으로 기쁜일이 아닐수 없으나 앞으로는 醫學情報 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III. 圖書館學科 및 學會

1976년 숙명여자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신설되었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서울에 모두 5개 대학에 설치되었고 1975년도에 신설된 경북대학교를 합하여 學部課程은 모두 6個校가 되었다. 여기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도서관학과가 지역적으로 안배되지 않고 편중되어 있다는 點이다. 호남지방에서는 유자격 사서를 구할 수 없어 곤란을 받고 있다. 1975년도에 대구지방에 초급대학과정까지 3個校에 신설되었다. 필자 생각으로는 光州에 1個科, 釜山에 1個科, 大邱에 1個科, 大田에 1個科 정도가 지역적으로 안배되면 지역도서관 발전에도 도움을 줄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대구에서만 3個校에서 사서가 배출된다면 大邱에는 사서가 남아돌아가 취직난이 예상될 것이며 호남·충청지방에는 사서가 부족하여 곤란을 받는 부조리가 조성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학회에서는 2회의 학술발표회를 가졌고 大邱도서관학회에서도 제3회 학술발표회가 11월28일 개최되었고 도서관논총 제2집이 발행되는등 韓國圖書館學會보다도 大邱도서관학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한 듯 하였다.

## IV. 張一世先生 別世

故 張一世 先生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10년, 그 후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에서 후배양성에 힘을 쓰

셨고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과장을 거쳐 한국해외개발연구원의 창설과 함께 도서실 창설에 주역을 맡아 同室長으로 근무중 병사를 이기지 못하여 별세하였다. 故 張一世先生은 한국에서 IFLA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다 그 대회도 보지 못하고 한참 일하시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였다. 건문위원장으로 협회발전에 공헌하신 것은 물론 한국목록규칙해설등 10여종의 저술과 100여편의 논문들을 남기셨다. 이 기회에 협회 총회 식순에 “유명을 달리하신 도서관인 영령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여 외롭고 고생스럽게 도서관 발전에 초석이 되었던 도서관인 영령을 위로하고 도서관인의 사명감을 한층 북돋을 수 있도록 할것을 제언하고 싶다.

## V. 其他

### 1) 正讀圖書館의 設立

舊 경기고등학교가 江南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자리를 개조하여 正讀圖書館을 세우기 爲하여 공사중이며 곧 개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것이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그곳으로 옮겨서 명실공히 한국의 도서관 상경으로 또는 공공도서관을 대표할 수 있는 면모로 발전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된다. 아무튼 우리나라에 큰 규모의 도서관이 하나라도 증가된다는 것만은 기쁜일임에 틀림없다.

### 2) 정사서 자격취득 강습회 실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격취득 강습회가 10월4일부터 11월4일까지 실시되었다.

자격있는 사서들이 태부족이었던 과거에 專門人을 배출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으로 안다. 사서를 전문적이라 볼 때에 1개월 정도의 단기간 강습을 통하여 자격증을 발급한다면 누구나 그 전문성을 인정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 주제넘은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도서관학이란 모든 다른 학문을 개발하고 연구·조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필요하에 존재하는 학문이라 볼때에 사서는 마땅히 도서관학 이외에 가능한한 여러 분야의 학문을 겸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자료를 분류 편목하는 업무는 하나의 테크닉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Technician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면 1개월 정도의 강습회를 통해서도 이해가 될 수 있겠으나 情報의 중계인이란 관점에서 볼 때에는 도서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고객에 못지않은 학문의 바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필자의 생각으로는 도서관학을 학부과정에서 대학원과정으로 완전히 개편하여 하나의 주제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할 時

點에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사서자격강습회는  
이제는 폐지하는것이 마땅하다 생각된다. 전체사서들  
의 전문성의 인정에도 좁아 되며 도서관 직원의 신규  
채용에 있어서도 채용후 1개월정도의 강습으로 사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학과 출신자를 채용할 필요  
성이 도의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도서관인 테니스大會 개최

도서관인 테니스 클럽에서는 지난 10월17일 한양의  
대 테니스 코트에서 40여명의 서울 시내 男女 도서관인  
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  
한 정신이 기쁜다는 말과같이 하루 종일 책과 씨름하는  
도서관인들이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한 다  
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등산, 낚시 클  
럽 등을 설립하여 도서관인들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넓  
혀 나가면 좋을 것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열거한 일들만이 중요한 사진들의 전부는  
아닐 것이며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역사성을 가지고  
볼때에는 도서관계의 먼 장래에 보다 발전된 도서관계  
가 이룩되는데 하나하나의 요인이 될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필자가 미처 알지못한 중요한 일도 있을것이나  
時日이 촉박하여 널리 조사치 못하였음을 사과드리는  
바이다.

새해에는 보다 건진의 해가 되어야 할것이고 우리도  
서관인들의 전체의 소망인 도서관법의 개정과 도서관  
발전 중기계획이 결실을 맺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전체 도서관인들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상에서 기술한 중에는 필자의 편견이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도에 지나친 편견과 틀린 點이 있다면 선배제현의  
가르침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스와이거 女史의 近况

韓國의 現代의 概念의 圖書館學 普及을 위하여 駐韓  
美教育使節團(OEC)의 一員으로 來韓하여 1956年—1960  
年間 奉仕한바 있는 스와이거 女史가 아래와 같이 所  
息을 傳해 왔기에 揭載합니다.

MESSAGE: Because so many of my Holiday greeting cards have been returned, I've been searching for a more reliable means of reaching all my dear friends and Library colleagues and hope this message in KLA Bulletin will do the trick. I was so proud of you when I learned that you were hosting the IFLA Conference this year and wished that I could have been there. You have made such wonderful progress over the past 15 years. I have retired from full time work but do have many consultations with librarians in person or through correspondence. I am president of my chapte of Delta Kappa Gamma international women's honorary educational society, and this keeps me very busy. We are both well. I extend to each you my good wishes for a Happy Holiday Season and a rewarding year ahead in both your professional and personal life. Most sincerely,

☞ 스와이거 女史의 現在 住所는 아래와 같습니다.

Mrs. Ethel C. Swiger  
2960 Lake St., Apt. 152  
Lake Charles, La. 70601  
U.S.A.